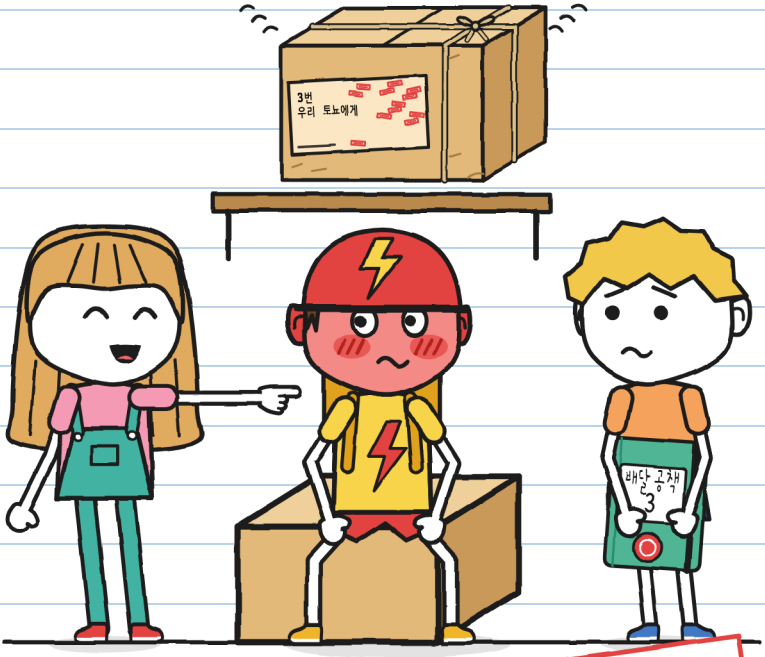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M
중급 · 9+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M · 중급 · 9+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다가 다친 배달원은 없다.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있다. —J.



그리고 내가 먼저 읽는다. —J.

이걸 찾았다면 돌려줘. 부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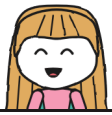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자전거를 탈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그린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도울 방법은 늘 안다. 그게 문제다.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한 군데씩 빨개진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조이. 번개배송 배달원.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브루노. 번개배송 배달원.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3번 택배.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라벨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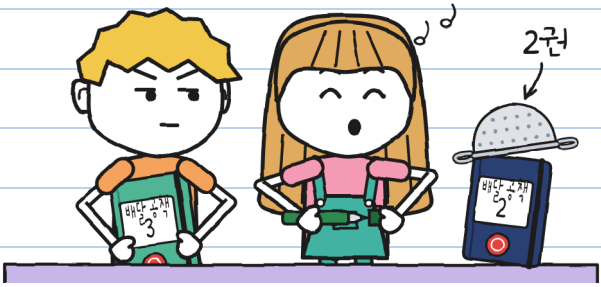


R.은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3
주인 : 구니

비밀.

비밀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해. —J.



공책 2권은 폭풍 한 번에 다 썼다. 이건 초록색이고 가게 도장도 있다. 내가 먼저 쓰려고 했는데, 먼저 쓴 건 훌리타다.

널 도우려고 내가 먼저 썼어. 천만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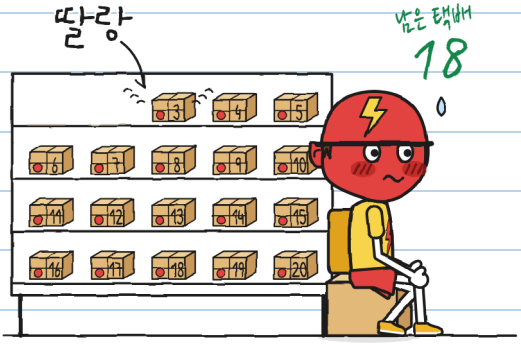
나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다. 훌리타한테는 상관없다.

제1장

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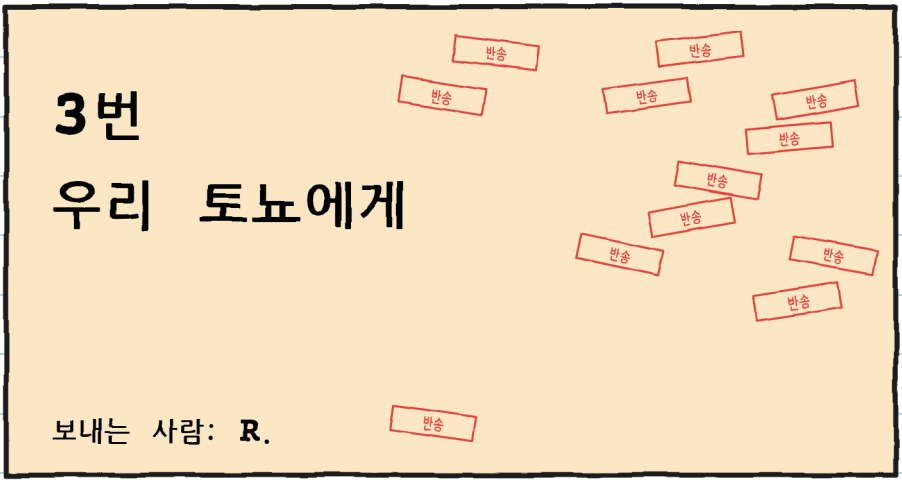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는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가 있다.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처음에는 스무 개였다. 훌리타와
나는 두 개를 배달했다. 용의 알 하나와, 달리는
씨앗들이다. 이제 열여덟 개가 남았다.

폭풍이 친 날 밤, 우리가 막 집에 가려는데 택배 하나가
소리를 냈다.
딸랑.



3번 택배였다. 그러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인 번개배송
배달원 토쇼의 얼굴이 헬멧과 같은 색이 되었다.

서명이 없으면 돌아온 택배는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받는 사람의 서명만 인정된다.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써야 한다. R.은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택배들을 보내는 사람이다.



훌리타가 라벨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토..."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훌리타는 말 중간에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 나는 토뇨를 보았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라벨을 반만 읽었다. 나머지 반은 삼켰다. —J.

한꺼번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토뇨는 아니다.
토뇨는 한 군데씩 빨개진다. 적어 두었다.

토뇨의 빨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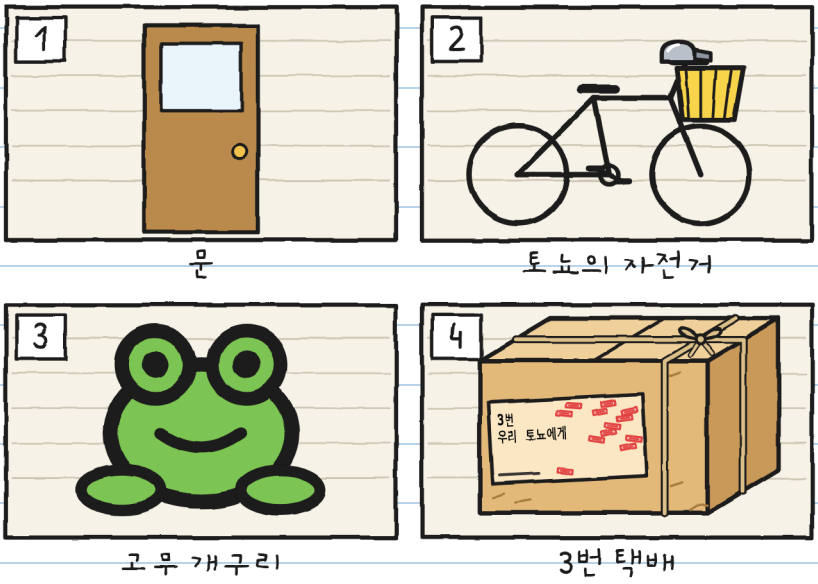
"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 토뇨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몇 년째 기다렸잖아요? 하루 더 기다리면 되죠.
열흘이어도요. 번개배송은 안 급해요."
번개배송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었다.

그날 밤: 4. 나라면 빨간색으로 적을 텐데. 초록색밖에 없어. —J.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열지 않아."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선반은 허락 없이 손대지 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딸랑 소리가 또 났다.
딸랑.
"문이 그랬어!" 훌리타가 말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딸랑 소리의 용의자



문 토뇨의 자전거 고무 개구리 3번 택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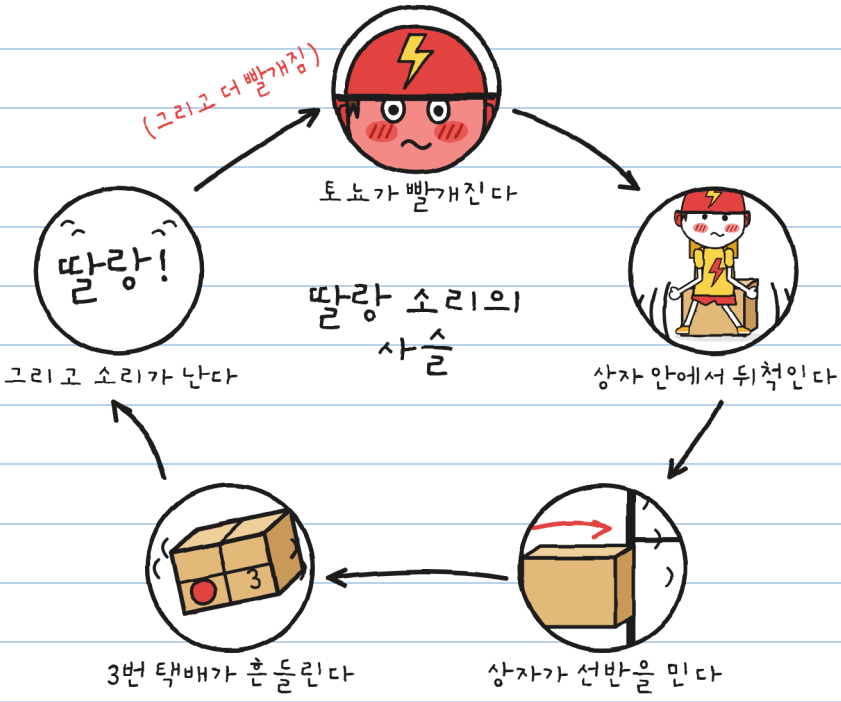
개구리는 무죄야. 내가 잘 알아. —J.

나는 소리를 시험해 보려고 인도로 나갔다. 비는 이미 그쳤다.
문을 열고 닫았다. 끼이익. 토요 자전거의 벨을 울렸다.
따르릉! 개구리를 눌렀다. 삑.



안에서 훌리타가 손가락을 흔들며 아니라고 했다. 어느 것도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들어갔다. 상자에 앉은 토요가 몸을 뒤척였다.
딸랑.

나는 쭈그려 앉았다. 토쇼의 상자가 선반 다리에 기대어 있었다.



마법이 아니었다. 토쇼였다.
택배를 움직이면 3번 택배 안에서 뭔가가 소리를 낸다.

나처럼 —J.

토쇼는 가만히 있기로 했다. 이만큼 버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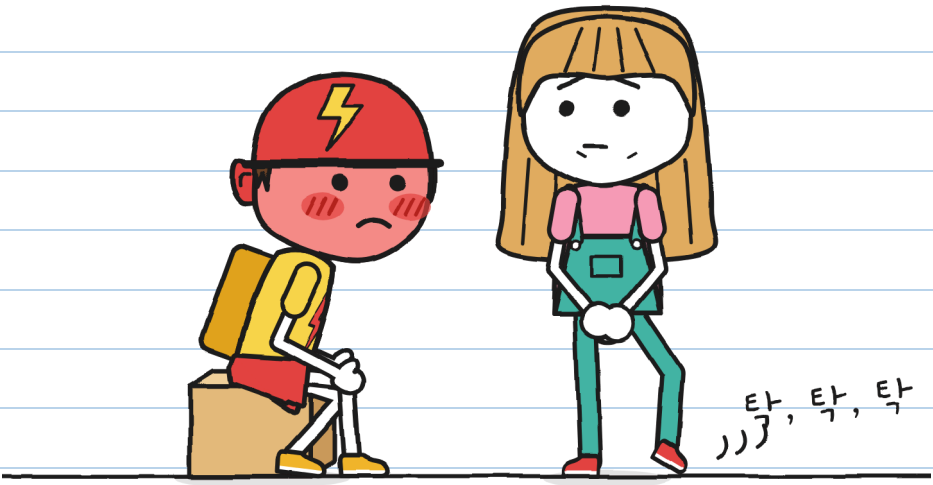


질문일 뿐이야. 질문은 선반을 밀지 않아. —J.

이번 건 밀었다.

"나였어." 토뇨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릴 때."
너무 작은 소리여서 개구리가 나보다 더 잘 들었을 것이다.

훌리타가 입을 열었다.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았다.
훌리타는 계속 운동화만 내려다보는 토뇨를 보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더 안 물어볼게." 훌리타가 말했다.
참느라 힘들었다. 발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안 한 질문: 아홉 개. 다 적어 놨어. —J.

"그런데 왜 한 번도 전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열두 번 가져갔어. 라벨을 봐. 길 이름도 번지수도 성도 없어. 내가 찾아낸 '우리 토뇨'는 전부 찾아가 봤어."

마라의 우리 토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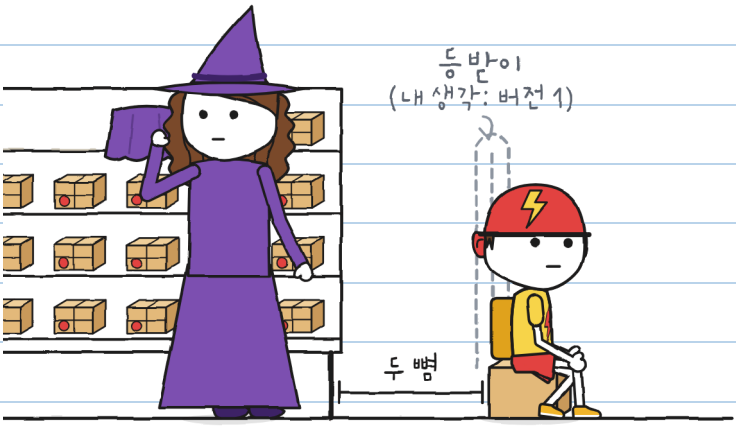


1. 카나리아 한 마리. (라벨을 뱉았다. 안 된다.)
2. 안토니오 할아버지, 커세. ("나도 그러고 싶구나.")
3. 운하의 작은 배. (손이 없다.)

"토뇨는요?" 훌리타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배달하려고 했을 때는 토뇨를 몰랐어." 마라 아줌마가 토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어릴 때 뭐라고 불렸는지 말해 주지 않았거든."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서 보라색 천을 꺼냈다.
앵무새를 재울 때 새장을 덮듯이 3번 택배를 덮었다.
그러고는 토쇼의 상자를 선반에서 두 뼘 떼어 놓았다.
"자. 이제 마음껏 움직여도 돼."



토쇼는 갈 수도 있었다. 자전거가 문 앞에 있었다.
10분이면 동네 반대쪽 끝에 갈 수 있었다.
토쇼는 다시 앉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적어 둔다. 토쇼의 상자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하나 그려 주었다.

아무도 너한테 등받이 그려 달라고 안 했어. —J.

가게 문을 닫을 때, 토쇼는 마지막까지 남아 헬멧 끈을 채우고 있었다.

"마라아줌마, 내일 그 얘기하러 올게요. 우리끼리요."

"이 둘은 가게 식구야."

토쇼가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 둘은 괜찮아요. 하지만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요."



딸랑 소리의 주인은 이제 알았다. 토쇼였다. 토쇼가 이 택배를 원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토쇼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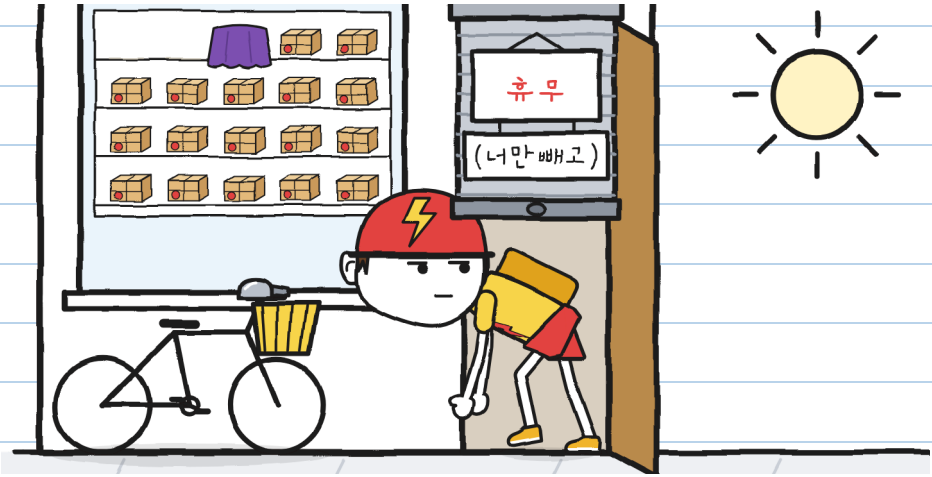
그게 걱정이다.

제2장

좋다고는 안 했어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 마라아줌마는 셔터를 반쯤 올려 두고 팻말을 붙였다: 휴무 (너만빼고).

토요는 11시에 왔다. 들어오기 전에 길 양쪽을 살폈다. 길을 건너기 전처럼. 번개배송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10시 반에 왔어. 혹시 몰라서. —J.

마라아줌마는 3번 택배를 계산대에 놓았다. 천을 벗겼다.
마라아줌마는 간판을 읽듯이 말했다.
"택배 3번. 우리 토뇨에게. 너니?"
"예전엔요."
"그거면 됐어. 받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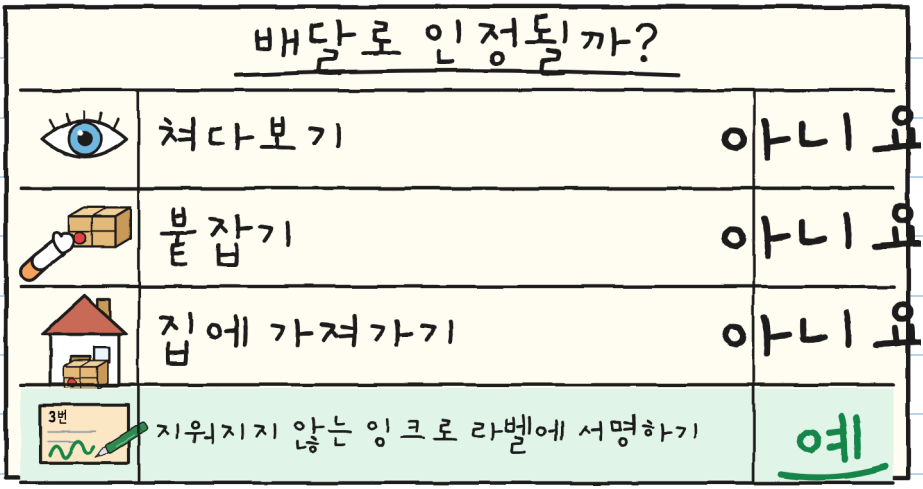
토뇨는 상자를 쳐다보았다. 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다고는 안 했어요."
"싫다고도 안 했잖아."
"좋다고는 안 했다고 했어요."



서명 안 하려고 세 문장이나. 내가 세어 봤어. —J.

토쇼는 뜨거운 냄비를 잡듯이 상자를 잡았다. 무게를 가늠해 보고, 빙 돌려 보았다. 귀에 대고 살짝 흔들었다. 딸랑.
토쇼는 얼른 상자를 놓았다.

"집에 가져가면 어때요?" 홀리타가 말했다. "택배가 토쇼 집에서 자면 이미 배달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요."
"돌아가는 도장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잉크로 움직이지."



도장이랑 나는 생각이 달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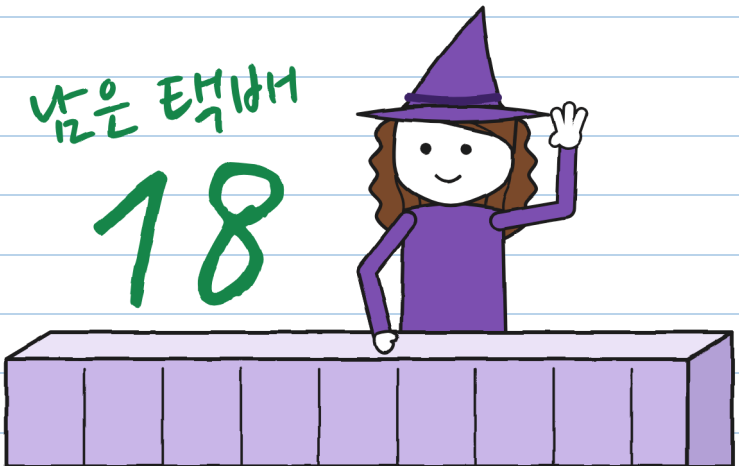
"훌리타, 구니. 이 배달은 너희 거야."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천둥 때처럼. 조건은 세 가지야."

마라아줌마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1. 너희는 상자를 열지 마. 라벨은 붙은 채로 둬.
2. 3번 택배는 토쇼가 달라고 할 때만 가게 밖으로 나가.
3. 받는 사람은 원하면 서명해. 서명이 없으면 택배는 해 뜰 때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토쇼가 끝까지 싫다고 하면요?" 훌리타가 물었다.

"그럼 영영 안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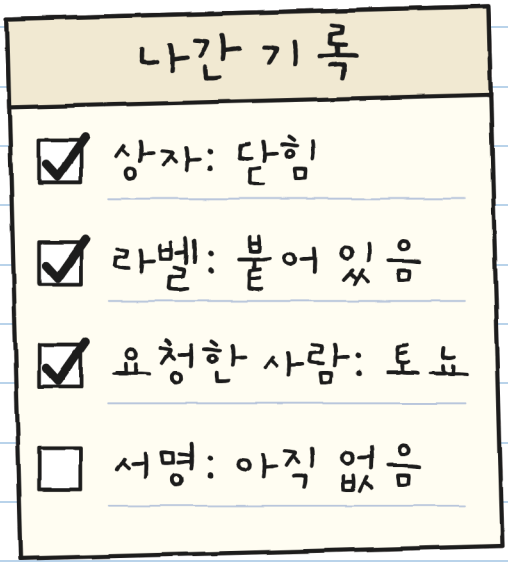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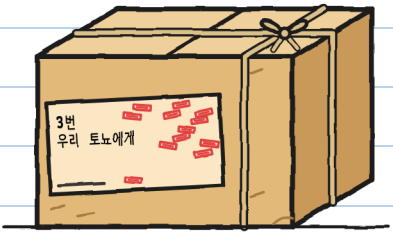
영영은 배달 날짜가 아니야. —J.

토뇨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훌리타가 시간을 쟀다. 4분이었다. 번개배송에는 거의 배달 반 건이다.

"가져갈게요." 토뇨가 마침내 말했다. "단은 채로요.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은요."
"네가 달라고 하는 거니?"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3번 택배가 어떻게 나갔는지 적었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밖에서 토뇨는 3번 택배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었다. 손을 놓자 소리가 났다. 딸랑.

토뇨는 번개배송 벨이 달린 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뭔가 떠올린 것처럼.
"왜?" 훌리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토뇨는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걸어갔다. 토뇨는 걸어 다니는 법이 없다.



그 아무것도는 뭔가 였어. 도와줘야 해. —J.

문가에서 모퉁이에 서 있는 번개배송 자전거 두 대가 보였다.

"토뇨! 바구니에 뭐 실었어?" 허리까지 오는 땋은 머리의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배달."

"누구한테?"

"손님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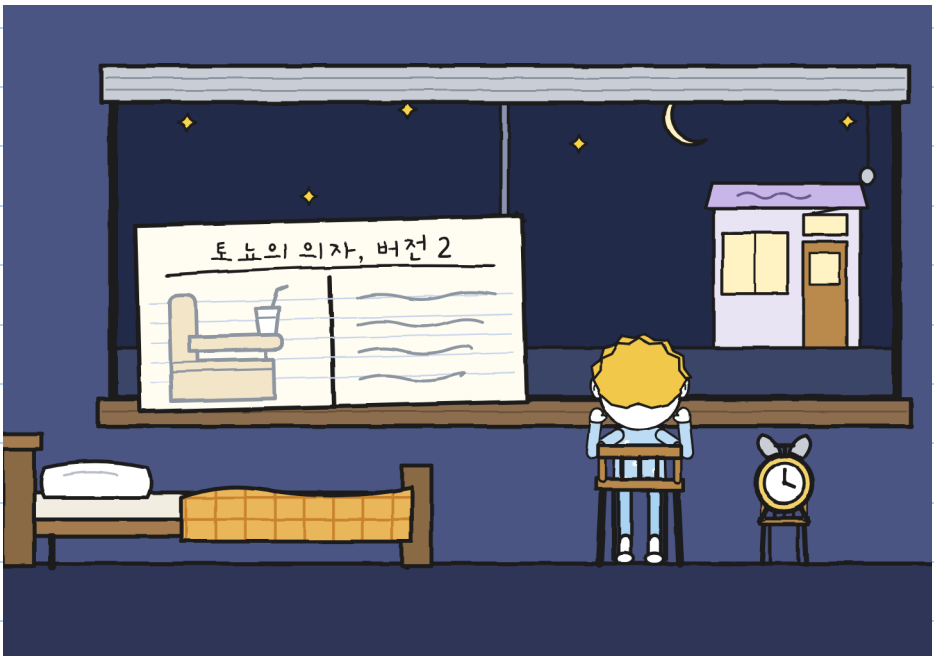
거짓말은 아니었다. 대답하기 전에 상자를 돌렸다. 라벨이 토뇨 쪽을 향했다. 번개배송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다.



이제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J.

그날 밤 나는 내 방 블라인드를 올려 두었다. 우리 집은 가게 맞은편이다. 3번 택배가 돌아오면 내가 볼 수 있다.

"구니?" 우리 엄마가 복도에서 말했다. "안 자고 뭐 하니?"
"택배를 지켜보고 있어."
"아. 그래. 그래도 잠옷은 입고 지켜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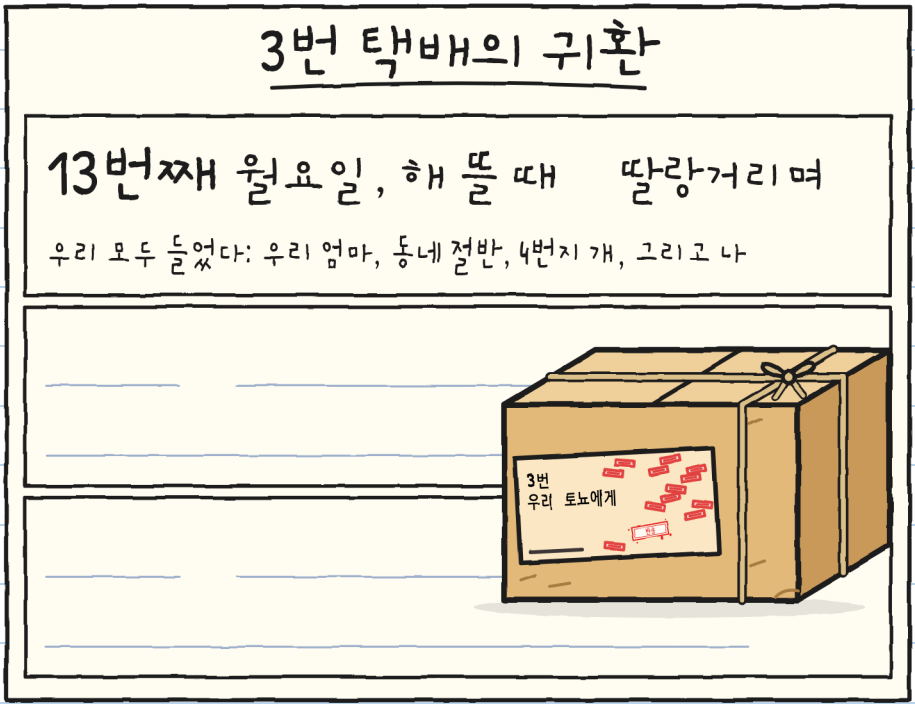


나도 지켜보고 싶었어. 내 창문은 마당 쪽이야. —J.

해 뜰 때 3번 택배는 눈에 보이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렸다.
딸랑, 딸랑, 딸랑.
서두르지 않고 지붕 위로 날아왔다. 아이스크림 수레처럼 딸랑거리면서. 창문 세 곳에 불이 켜졌다. 개가 짖었다. 3번 택배는 문 위의 작은 창으로 쏙 들어왔다. 마라 아줌마가 이럴 때를 위해 열어 두는 창이다.



학교가 끝나고 우리는 가게로 갔다. 3번 택배는 선반 위에 있었다. 도장이 하나 더 늘어 열세 개였다.



"벌이 아니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규칙이야.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도장이 열세 개. 이러다간 상자가 안 보이겠어. —J.

토뇨는 5시 20분에 왔다. 배달을 마치고 온 것이다. 3번 택배가 돌아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집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내가 보지 못했다. 토뇨가 얘기해 주었다:

토뇨가 내게 해 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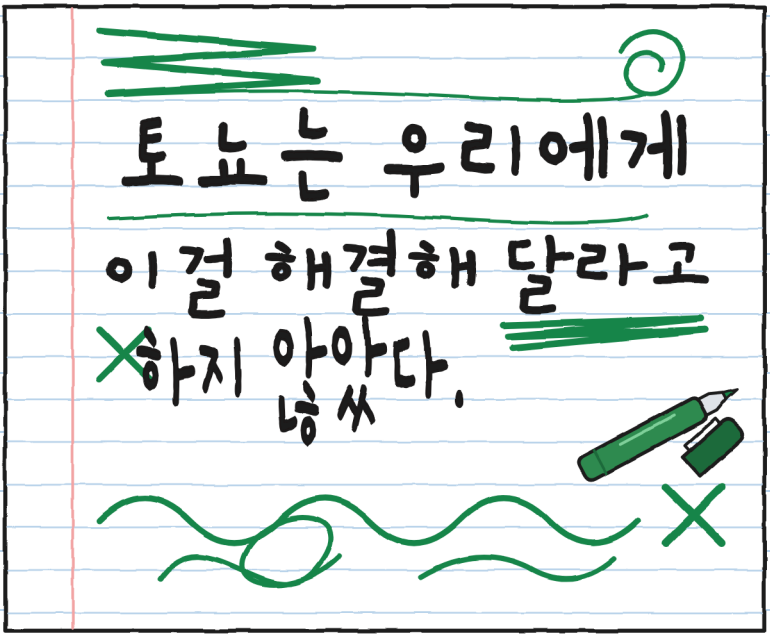
"현관 매트에 두었어. 밤새도록."

"왜 집 안에 안 들였어?" 훌리타가 물었다.

"집에는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많아."

"서명 하나면 다 해결돼." 토뇨가 가고 나자 훌리타가 말했다. "딱 하나만. 2초면 돼. 내 서명으로 재봤어."

나는 공책을 폈다. '초록색이 내 문장을 덮지는 못할 거야.' 하고 생각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다:



읽었어. 동의 안 해. 일단은 —J.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J.

제3장

사인

화요일, 학교가 끝나고 나오니 가게 앞 인도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노란 식탁보가 씌워져 있었고, 훌리타의 글씨로 쓴 팻말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식탁보에 덮인 불룩한 것이 있었다.



"받침대야. 사인하기 편하게 받쳐 주는 거." 훌리타가 말했다. "나 사인 모아."

"언제부터 사인을 모았어?"

"어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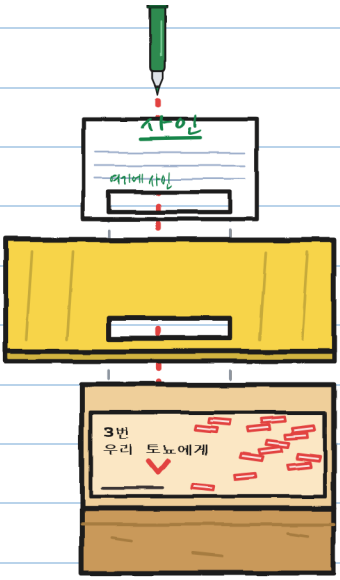
받침대 위에는 줄이 그어진 종이가 있었다. 아래에는 가위로 오려 낸 작은 창. 식탁보에도 똑같은 게 바로 밑에 있었다.

식탁보 귀퉁이를 들춰 보았다. 받침대는 눕혀 놓은 3번 택배였다. 작은 창들로 라벨이 위로 보였다.

이렇게 한다

1. 작은 창이 난 종이.

2. 구멍이 난 식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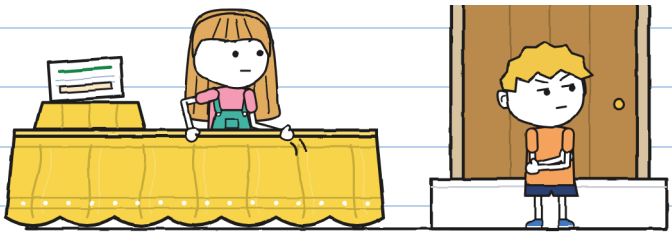


3. 3번 택배의 라벨, 비어 있는 부분.
4. 작은 창에 사인하면… 라벨에 서명하는 것.

"내 매직펜으로." 훌리타가 신이 나서 속삭였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야. 내일은 3번 택배가 안 돌아와. 우리가 택배를 보여 줄 때 토요가 알게 돼. 깜짝!"

"토요는 3번 택배를 가게 밖으로 내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조건 2번이야."
"고마워할 거야."
"마라아줌마는?"
"전화 중이었어. 사인 탁자라고 말씀드렸어. 진짜 사인 탁자니까."
"받침대는?"
"그건 안 물어보시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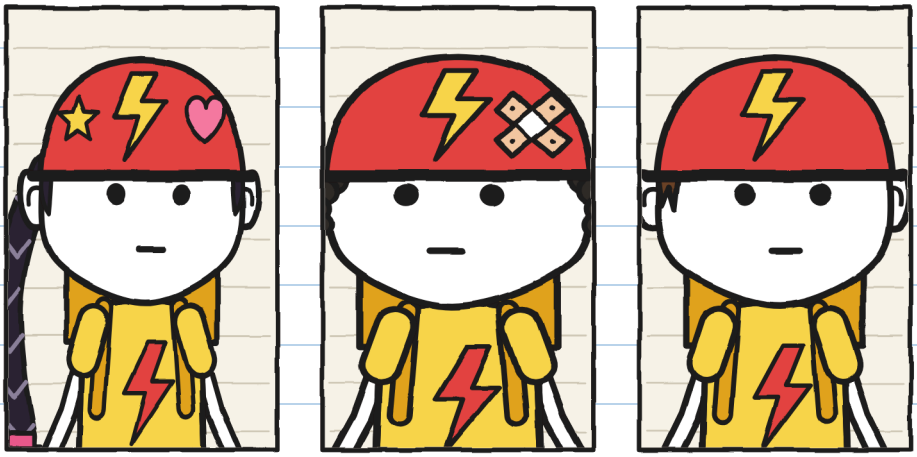
플로라아줌마와 여덟 번째 씨앗 일을 떠올려 주었다.
훌리타는 플로라아줌마가 때가 되기 전에 서명하지 못하게 했다.
"그건 달라. 그 배달은 아직 덜 끝난 거였어. 이건 지름길이야. 더 짧은 길."
"그럼 네가 해. 나는 안 할래."



계단에 앉았다. 아주 의젓하게. 하나도 안 도왔다. —J.

번개배송은 5시 10분에 우리 동네 길을 지나간다.
셋이 줄지어서.

번개배송 카드



조이, '로켓':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브루노, '펑크':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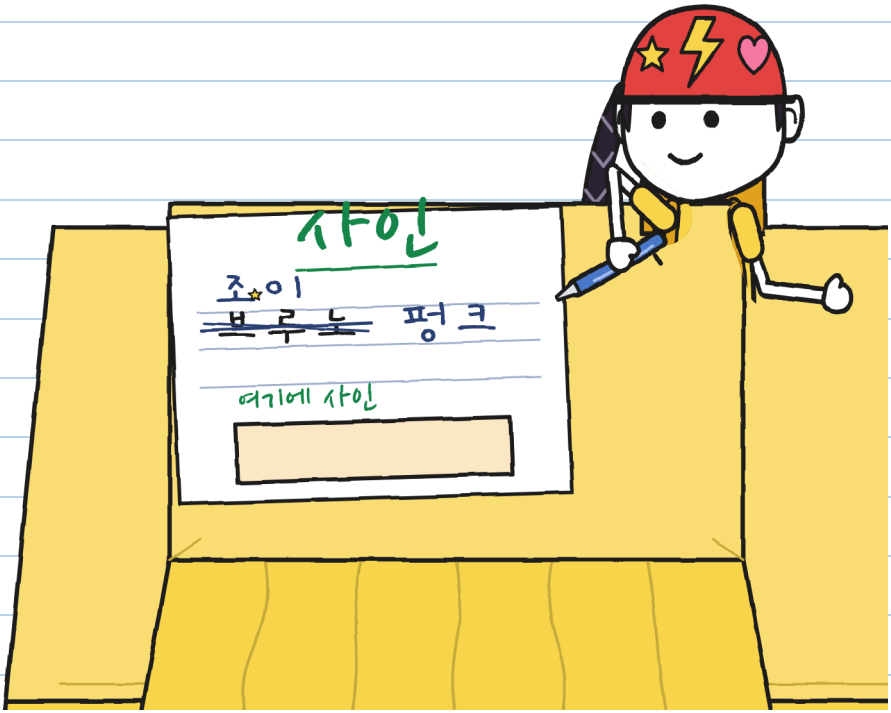
토요:
별명 없음.
아직.

"사인? 우리 사인?" 조이가 말했다. 조이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에서 내렸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부탁한 적이 없어. 그래서 통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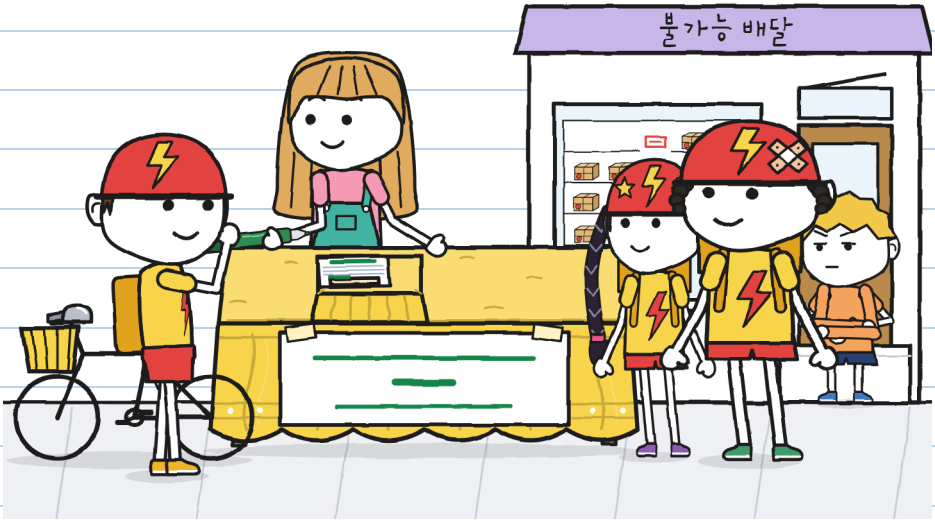
조이가 먼저 사인했다. '조이'의 ㅇ 안에 별을 그려 넣었다. 브루노는 '브루노'라고 썼다. 조이가 그걸 지우고 '펑크'라고 썼다.

"번개배송에서는 별명을 못 없애." 브루노가 화내지 않고 나에게 설명했다. "내가 한 번 펑크가 났었거든."



토요는 아직 자전거에 있었다. 일요일에 3번 택배를 쳐다본 것과 똑같이 탁자를 쳐다보았다.

"토쇼 차례야." 훌리타가 말했다. "여기 아래 네모 칸에.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야."
훌리타는 토쇼에게 초록색 매직펜을 주었다.
토쇼가 사인 부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토쇼는
자전거에서 내려 허리를 쭉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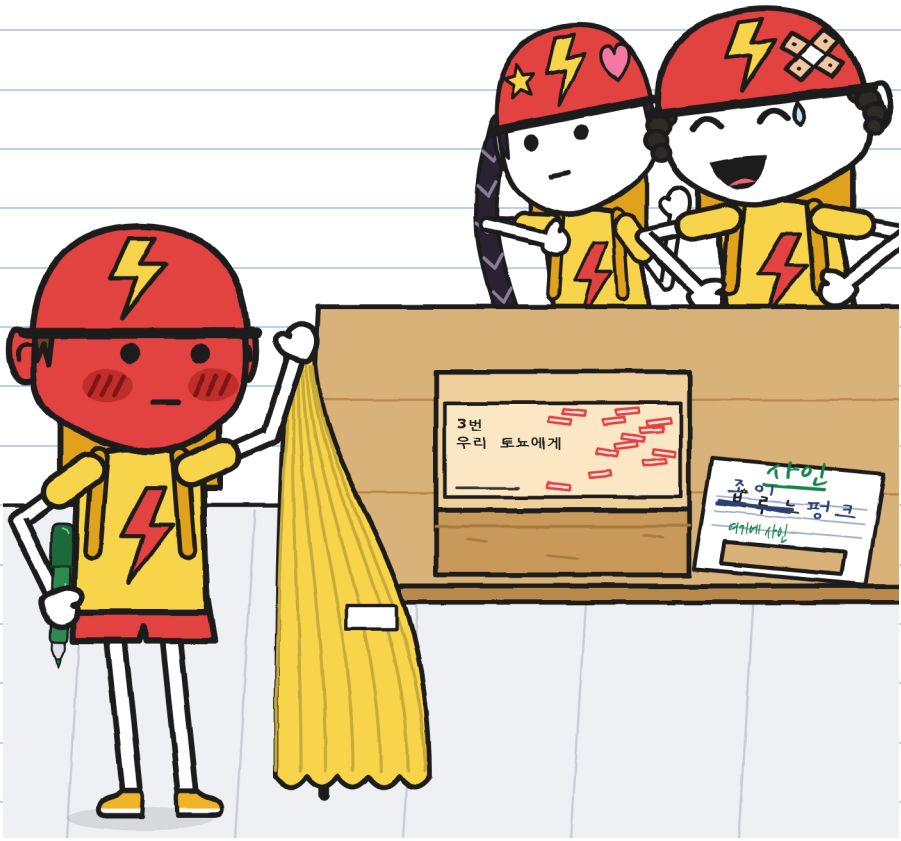


계단에서 다시 쳐보았다. '내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토뇨, 잠…"
너무 늦었다. 토뇨는 사인하려고 받침대를 확 끌어당겼다. 식탁보 밑에서 내 경고보다 먼저 뭔가가 소리를 냈다:



토쇼가 식탁보를 들어 올렸다.



"우-리 토-쇼-에-게." 조이가 상을 발표하듯이 천천히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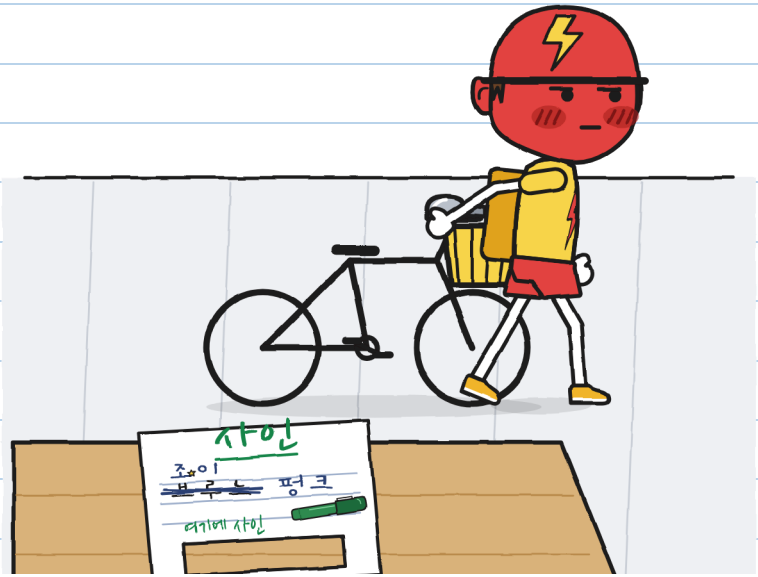
"우리 토쇼?" 브루노가 말하고 웃었다.

조이는 웃지 않았다. 조이는 생각하고 있었다.

토뇨는 소리치지 않았다. 매직펜 뚜껑을 천천히 닫고 종이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 없이.

"번개배송은 속임수에는 서명 안 해."

토뇨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걸어갔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



토뇨의 얼굴은 헬멧 색이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빨개진 게 아니었다. 화가 나서 빨개진 거였다.

빨강계에는 그런 빨강의 숫자가 없어. —J.

마라아줌마가 보라색 천을 들고 나왔다. 누가 택배를 꺼냈는지는 묻지 않았다. 선반의 빈자리를 보고, 탁자를 보고, 훌리타를 보았다.

마라아줌마는 3번 택배를 천으로 덮어 두 팔로 안았다.

"이 택배는 아직 배달된 게 아니야." 마라아줌마가 조이와 브루노에게 말했다. "그리고 라벨에 뭐라고 쓰여 있든 그건 토뇨가 알아서 할 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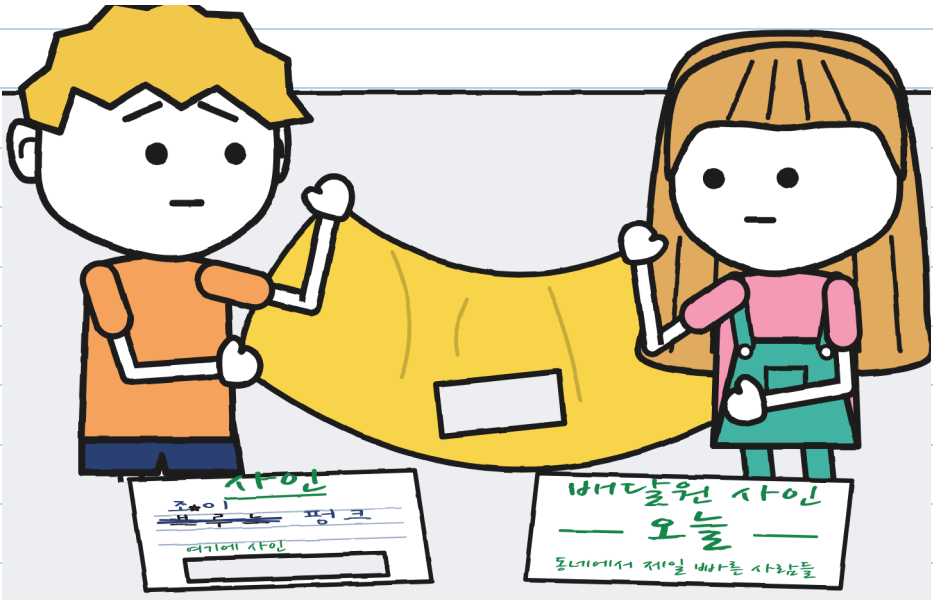


모두 벨도 울리지 않고 떠났다.

나는 훌리타가 정리하는 걸 도왔다. 식탁보, 팻말, 사인이 두 개 있고 구멍이 하나 난 종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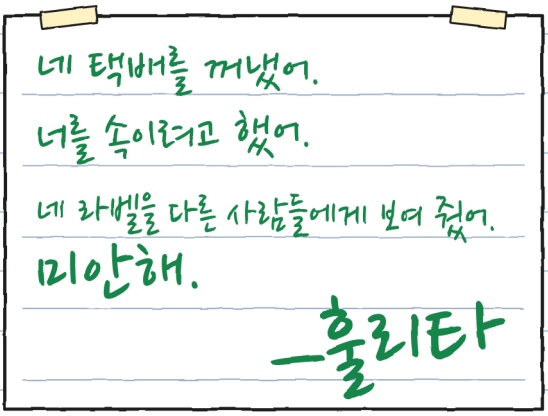
"늦게 알렸어. 더 일찍 알릴 수도 있었어. 아니면 마라 아줌마를 부르든가."



그러고 나서 훌리타는 안으로 들어가 도움 없이 마라 아줌마에게 다이야기했다. 작은 창, 식탁보, 선반, 전화. "토요한테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네가 직접 말해."

수요일에 토쇼는 5시 10분에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5시 20분에 다시 지나갔다. 세 번째에는 훌리타가 종이를 들고 인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과문



토쇼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를 읽었다.

"알았어. 읽었어."

"용서해 줄래?"

"읽었다고 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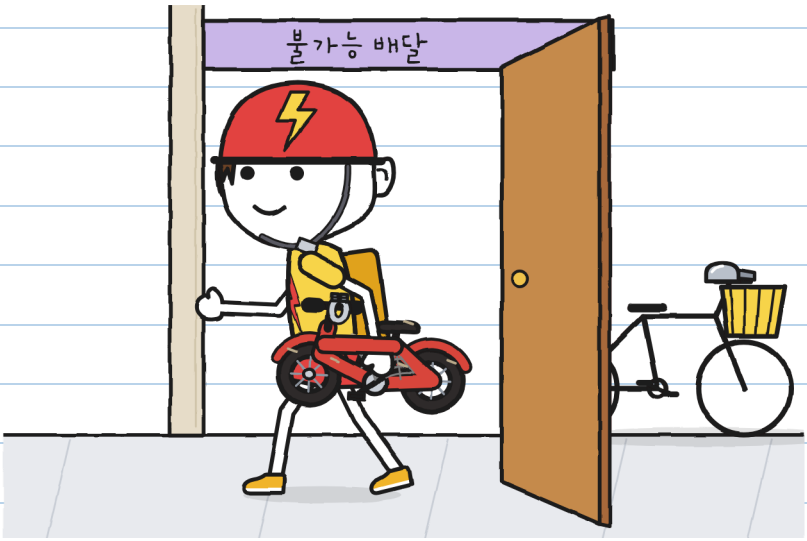
그날 오후 토쇼는 가게에 오지 않았다. 토쇼의 상자는 비어 있었다.

이름을 다 써서 서명했어. 그 정도는 해야지. —J.

제4장

작은 자전거

목요일에 토쇼는 길 양쪽을 살피지도 않고 가게로 들어왔다. 자전거를 한 대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지금 타는 자전거가 아니었다. 아니, 맞았다. 어릴 때 타던 자전거였다.

"일요일부터 머릿속에서 딸랑 소리가 나." 토쇼가 말했다. "그 소리를 알 것 같아.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보고 싶어."

"택배를 열어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말고요. 진열창이 없는 곳에서요."

마라 아줌마는 우리를 뒷방으로 데려갔다.

"열어서 보는 건 서명이 아니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서명이 없으면 해 뜰 때 돌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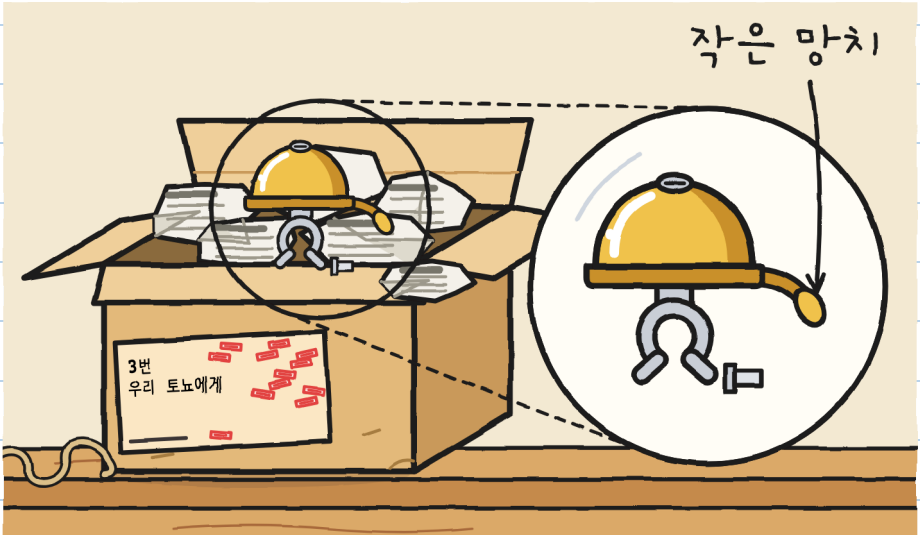
"나 있어도 돼?" 훌리타가 물었다. 정말로 물어본 것이다.

토뇨는 한참 걸렸다.

"아무것도 안 만지면."

"상자도 안 만지고, 그 얘기도 안 할게."

토뇨는 끈을 풀었다. 안에는 신문지가 들어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저절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신문지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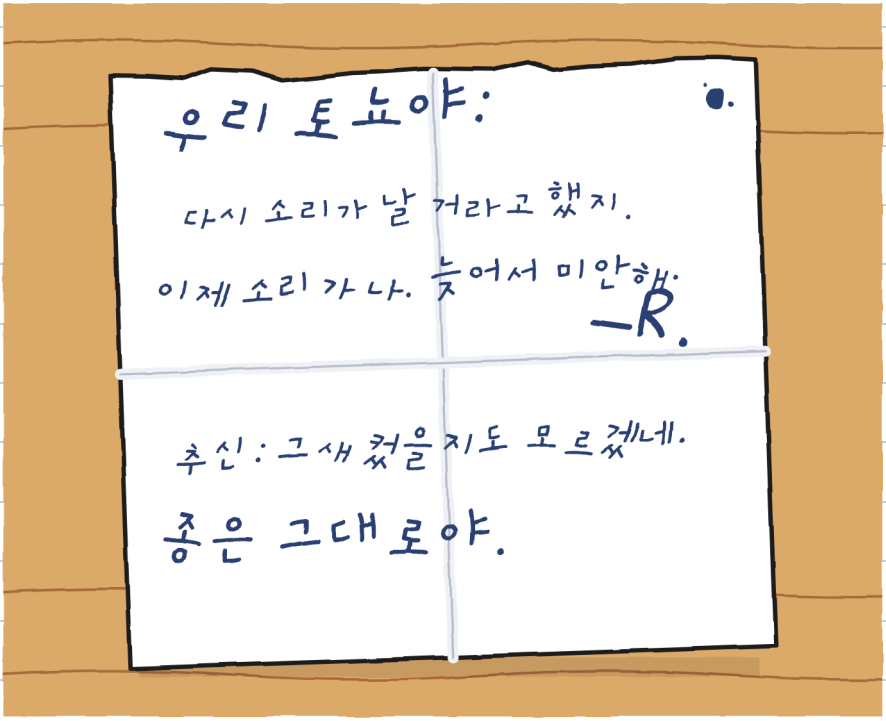


자전거 종이었다. 작고 금빛이고, 용수철에 달린 작은 망치가 있어서 살짝만 흔들어도 소리가 났다.

1번 택배는 물었다. 2번 택배는 달렸다. 3번 택배는 소리만 난다.

용도 없고 다리도 없어. 좋아. 마음에 들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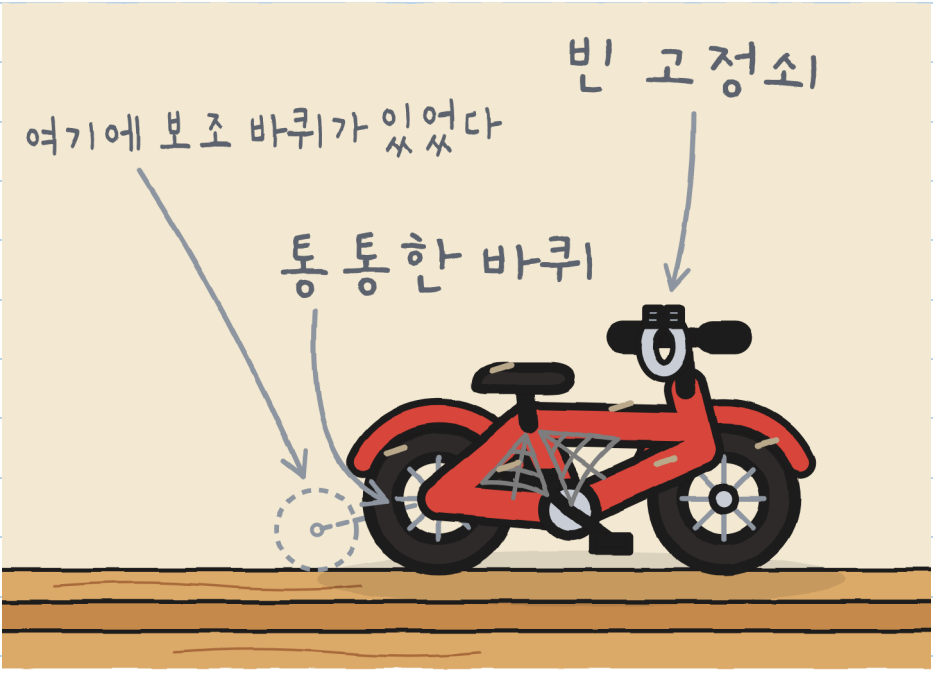
그 밑에 네 번 접힌 쪽지가 있었다.



토뇨는 두 번 읽었다.
"글씨 참 못 썼다." 토뇨가 말했다. 그러고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R.은 약속을 늦게 지켜. 플로라 아줌마가 그랬어. 얼마나 늦는지는 말 안 했어. —J.

그러자 토쇼가 작은 자전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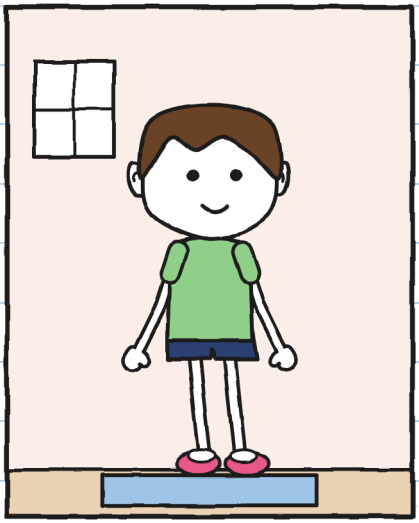


"내 거였어. 이 종이 고정쇠에 달려 있었지. 어느 날 종이 소리가 안 나고 딸깍 소리만 났어. 누가 그랬어. '우리 토쇼, 그거 줘 봐. 고쳐서 돌려줄게.'"
"누가?" 훌리타가 저도 모르게 말하고는 입을 막았다.
"얼굴은 기억 안 나. 종은 기억나.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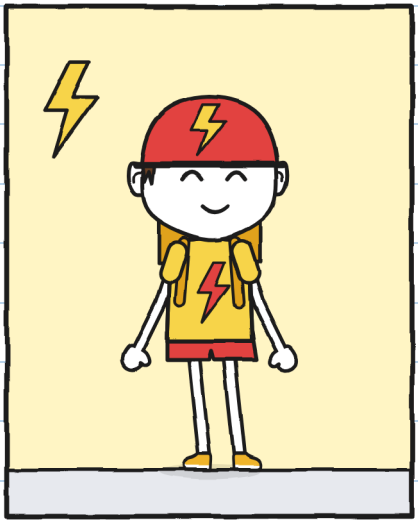
"집에서는 아직도 나를 '우리 토뇨'라고 불러."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아니야. 번개배송에서 나는 토뇨야. 첫날 내가 카드에 직접 썼어."

"'우리 토뇨'가 뭐가 나빠?"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조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번개배송에서는 별명을 못 없애. 브루노를 봐."



집에서: 우리 토뇨



번개배송에서: 토뇨

"브루노가 화요일부터 나를 '우리 토뇨'라고 여섯 번 불렀어." 토뇨가 덧붙였다.

휼리타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아직도 맞아?" 훌리타가 물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라아줌마가 자전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토뇨가 앉았다.



맞았다. 대충은.

마라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웃음 같았다. 토뇨도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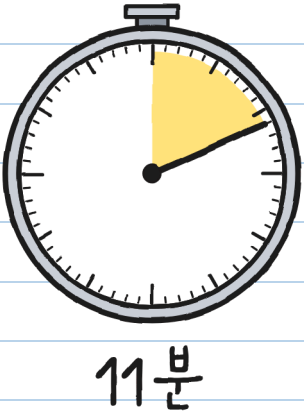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걸 못 봤다.

빨강계: 0. 이것도 세는 거니까 적어 둬. —J.

"지금 네 자전거에는 벌써 벨이 있잖아." 내가 말했다.
"번개배송 벨. 이 종을 꼭 달필요는 없어. 간직해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게 둬도 되고."
"알아." 토쇼가 말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말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훌리타는 매직펜을 넣어 두고 11분 동안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7분. 혀가 잠들어 버렸어. —J.

"혼자해 보고 싶어." 토뇨가 말했다.
마라아줌마와 훌리타와 나는 나왔다. 토뇨는 뒷방 문을 닫았다.

훌리타는 듣지 않으려고 가게 반대쪽으로 갔다. 나는 듣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렸다. 토뇨의 의자에는 이제 천 지붕이 있다. 천으로 만든 지붕이다. 그래도 들렸다.



딸랑.
토요일에 들었던 바로 그 딸랑 소리였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그러고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토뇨가 나왔을 때 한 손에는 종을, 겨드랑이에는 상자를 끼고 있었다.

"내일까지 가져갈게요. 서명 없이요."

"그럼 해 뜰 때 돌아와."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돌아오라고 해요. 하룻밤 가져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요."

"토뇨가 종을 상자 밖에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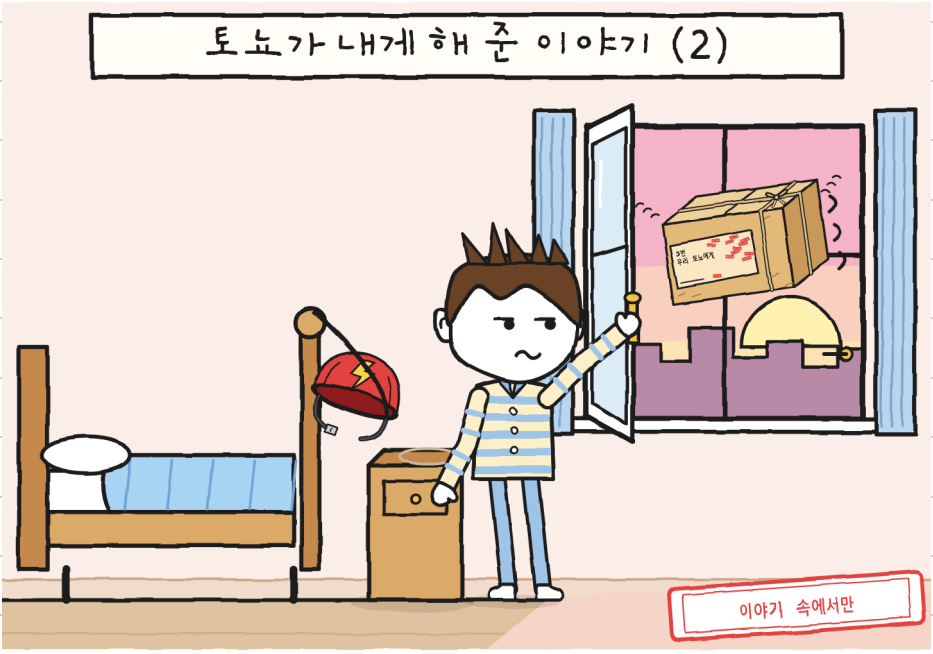
"한 번도 안 해 봤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시험해 볼 생각도 없고."

토뇨는 종과 쪽지를 상자 안에 넣었다.



내일까지 열네 시간 남았어. 다 셀 거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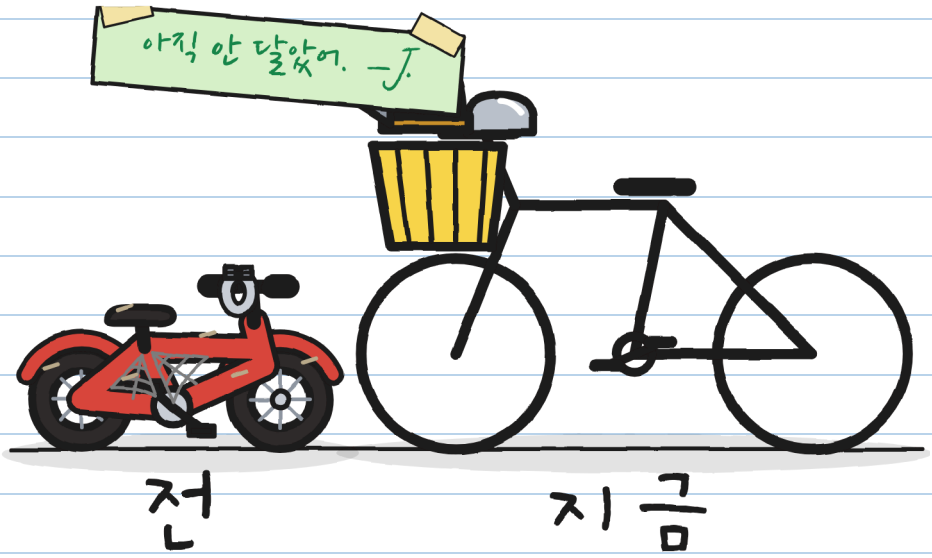
금요일에 우리 동네 길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딸랑, 딸랑, 딸랑. 14번째 귀환이었다.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못 봤다. 토뇨가 얘기해 주었다:



"이번에는 3번 택배가 현관 매트에서 안 잤어. 내 침대 옆 탁자에서 잤어. 해 뜰 때 유리창을 쿵쿵 치기 시작해서 창문을 열어 줬어."

택배한테 창문을 열어 줬대. 예의도 바르지. —J.

토쇼의 자전거 두 대를 나란히 그렸다. 지금 자전거에 종을 그려 넣었다. 아주 잘 어울린다.
훌리타가 그린 종 위에 쪽지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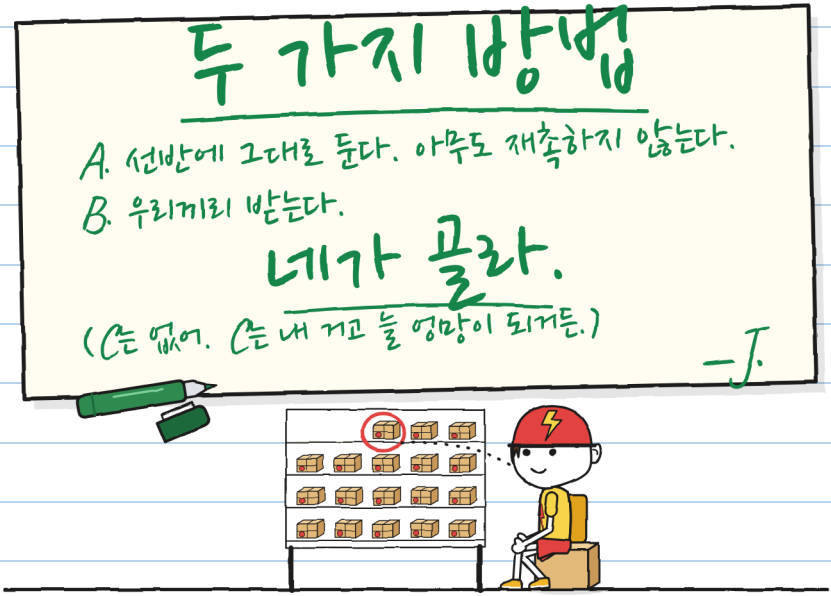
훌리타 말이 맞았다. 조금 짜증 난다.

제5장

우리끼리

금요일 오후, 3번 택배는 선반 위에 있었다. 도장이 열네 개였다. 토쇼는 상자에 앉아 멀리서 그걸 바라보았다.

훌리타는 이틀째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 사고가 날까 걱정했다.
두 가지 방법이 적힌 종이였다.



토뇨는 종이를 읽었다. 그러고는 마라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제가 서명하면 누가 알게 돼요?"
"나. 그리고 내 기록 장부. 배달을 적어 두는 장부인데 이
서랍 밖으로 안 나가."
"번개배송은요?"
"번개배송에는 말하지 않을 거야. 기록은 팻말이 아니야."



팻말에는 숫자가 적혀. 이름은 서랍에 남아. —J.

토쇼는 자기 상자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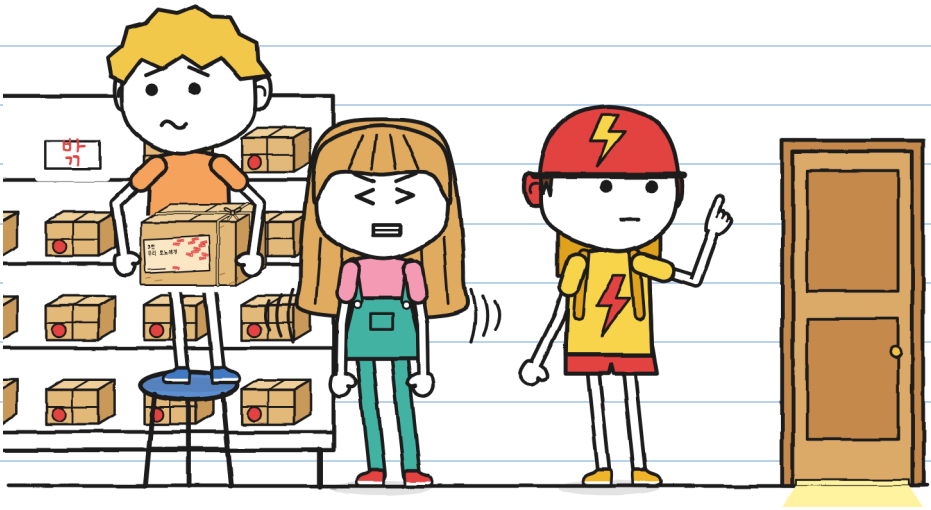
"B로 할래."

훌리타는 펄쩍 뛰지 않았다. 훌리타가 펄쩍 뛰지 않는 걸 나는 보았다.

"뒷방에서." 토쇼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있었으면 해. 너희 둘 다."

"나도?" 훌리타가 물었다.

"네가 누구보다 내가 서명하길 바라잖아. 눈앞에 있는 게 나야."



뒷방에서 토뇨는 종과 쪽지를 다시 꺼냈다.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서명하기 전에는 뭘 서명하는지 읽어 봐야 해." 토뇨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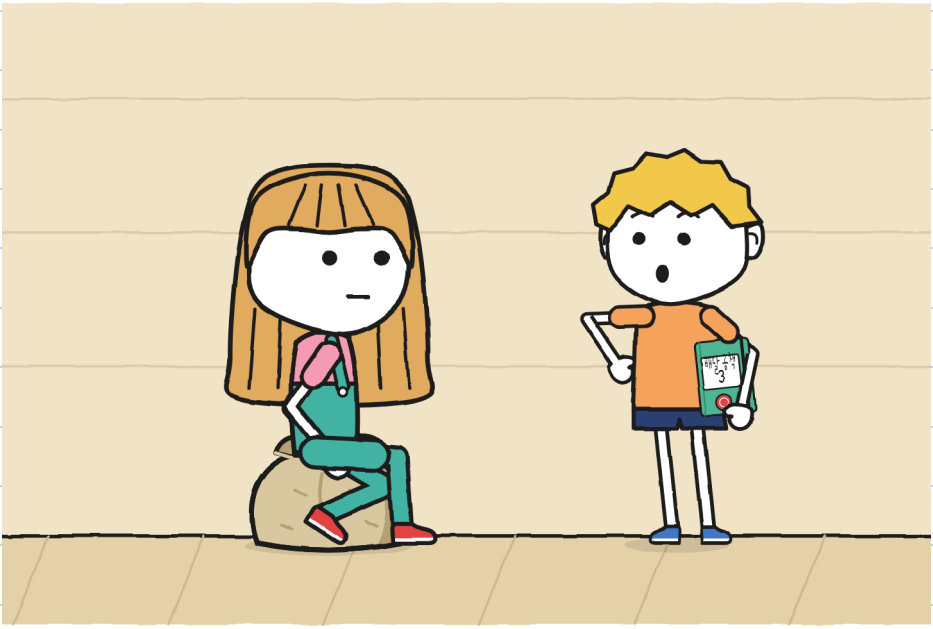
훌리타는 자기 티셔츠와 같은 색이 되었다.



훌리타는 초록색 매직펜을 토쇼에게 주었다. 그리고 구석의 자루에 앉았다.

"뭐 해?" 내가 물었다.

"내 손 위에 앉아 있어. 도와주지 않으려고."



나는 공책을 덮어서 옆구리에 끼었다.

그러고는 다 적었다. —J.

토뇨가 매직펜 뚜껑을 열고 서명했다.



라벨에는 '우리 토뇨'라고 적혀 있었다. 서명은 '토뇨'였다.

"이래도 돼요?" 토뇨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같은 이름이 아닌데."

"받는 사람이 서명하는 거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받은 건 너잖아."

마라 아줌마는 배달을 장부에 적었다. 훌리타는 어느새 파란 걸상을 손에 들고 있었다. 걸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팻말 바꿔도 돼?" 훌리타가 물었다. 마라 아줌마가 아니라 토뇨에게 물었다.

토뇨는 팻말을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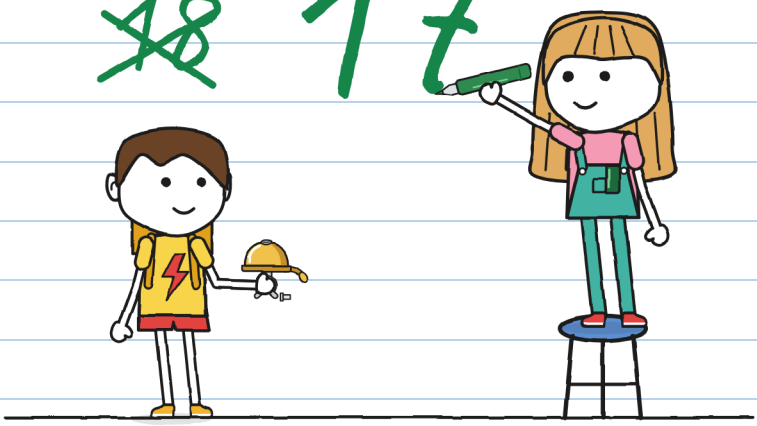
"숫자만 적혀 있는데."

"숫자만."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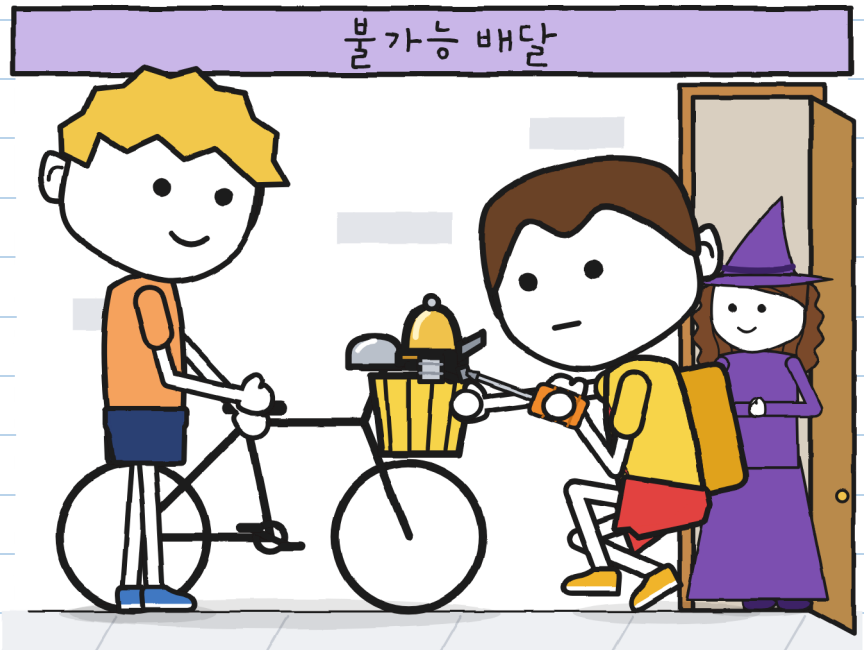
남은 택배

~~8~~ 17



내가 먼저 물어봤어. 이건 꼭 기록해 둬. —J.

토뇨는 인도로 나갔다. 자전거를 벽에 기대 세웠다.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종을 달 거야?" 내가 물었다.
"응."
"번개배송 벨은?"
"그건 번개배송 거야. 이건 내 거고."



토뇨가 종을 달았다. 나는 자전거만 잡아 주었다. 토뇨가 부탁해서였다. 토뇨는 손가락으로 작은 망치를 쳤다.
딸랑.

5시 10분에 번개배송이 지나갔다. 브루노가 멈췄다.

"그 소리 나는 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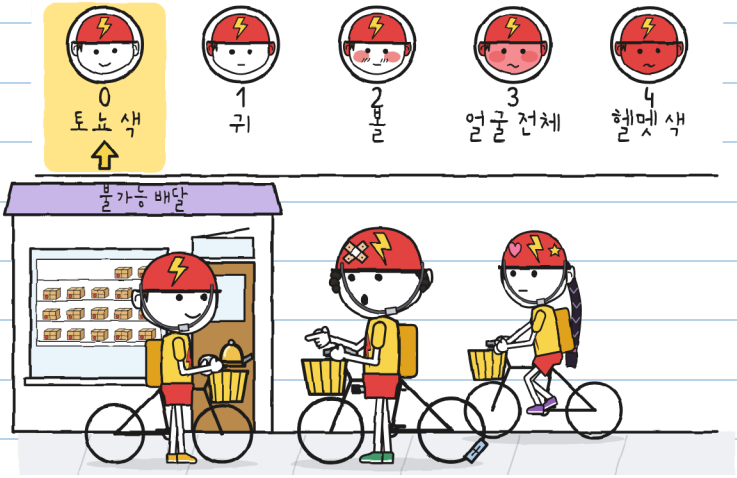
"종."

"어디서 났어?"

"내 거였어."

"네가 우리 토뇨였을 때 거?"

나는 토뇨의 얼굴을 보았다. 빨간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귀도.



"그렇게 불리던 때 거야. 지금은 토뇨야. 너는 이름이 뭐야?"

"펑…" 브루노가 말을 끊었다. "브루노."

"그럼 됐네, 브루노."

브루노가 고개를 들었다. 번개배송에서 브루노를 '브루노'라고 부르지 않은 지 2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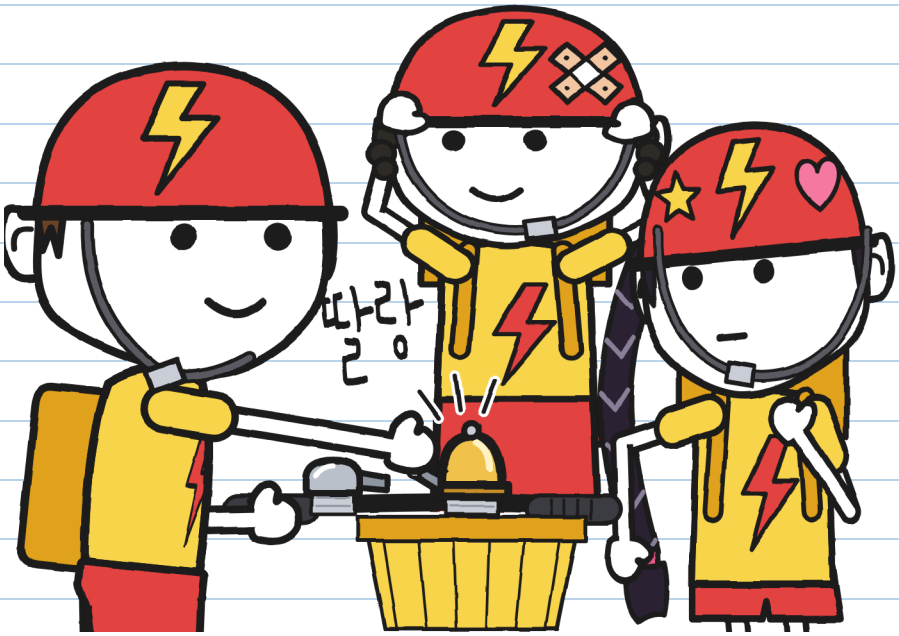
조이가 입을 열었다.

토뇨가 작은 망치를 쳤다. 딱 한 번.

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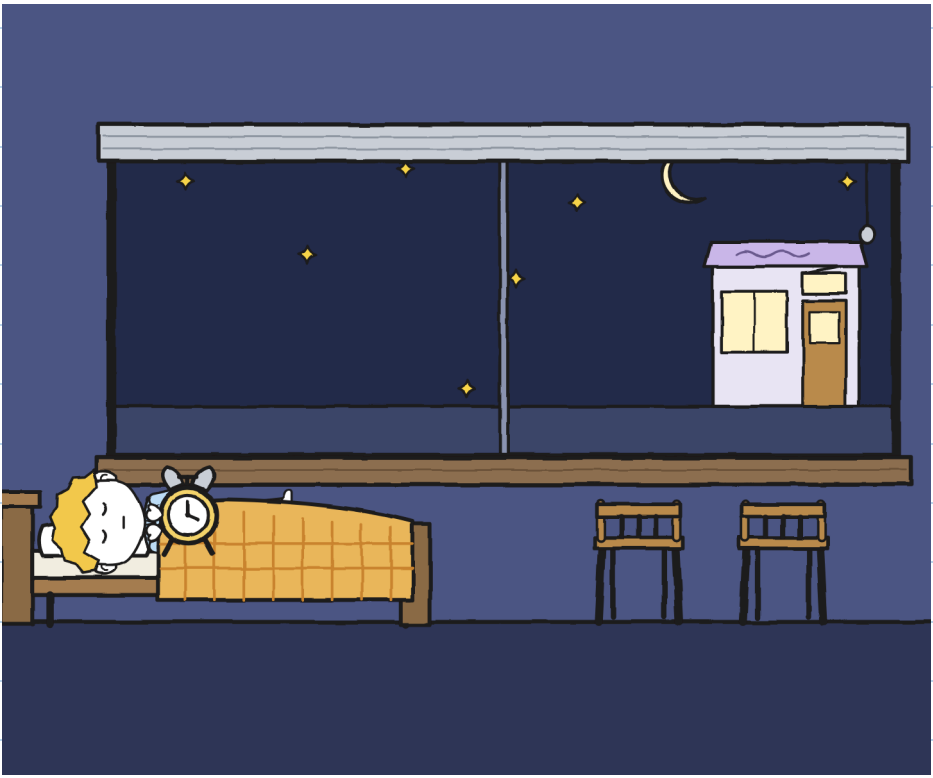
조이는 입을 닫았다. 잠깐 생각했다.

"소리 좋네." 조이가 말했다. "늦었어, 토뇨."



토뇨라고 했어.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J.

그날 밤에도 블라인드를 올려 두었다.
"또 지켜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물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야."
"그건 엄마가 아주 잘하지. 자렴."



뚜껑 열린 매직펜을 들고 잠들었어. 베개가 초록색이 됐어. —J.

해가 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딸랑 소리도, 열리는 창문도, 4번지 개도 없었다.
우리 동네 길에서 들어 본 가장 아름다운 고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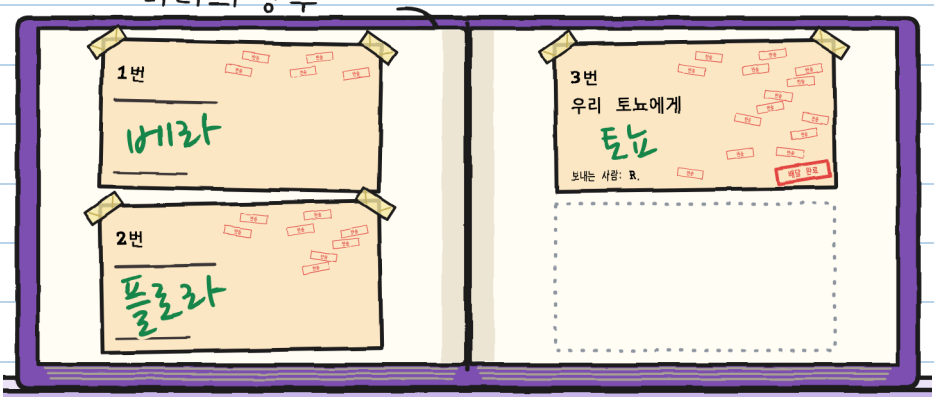
제6장

일단은

토요일 10시에 나는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일곱 개와 빈자리 세 개.

마라아줌마는 라벨을 장부에 붙였다. 앞의 두 장과 같이.

마라의 장부



알 하나, 씨앗 몇 알, 종 하나. 셋 다 늦게 도착했다. 셋 다 도착했다.

세 번째는 토뇨가 직접 서명했어. 이번에는 내가 매직펜만 건넸어. —J.

토쇼는 자기 상자에 앉아 몸을 뒤척였다. 이번에는 선반을 쳐다보지 않았다.

"의자는 여전히 '일단'이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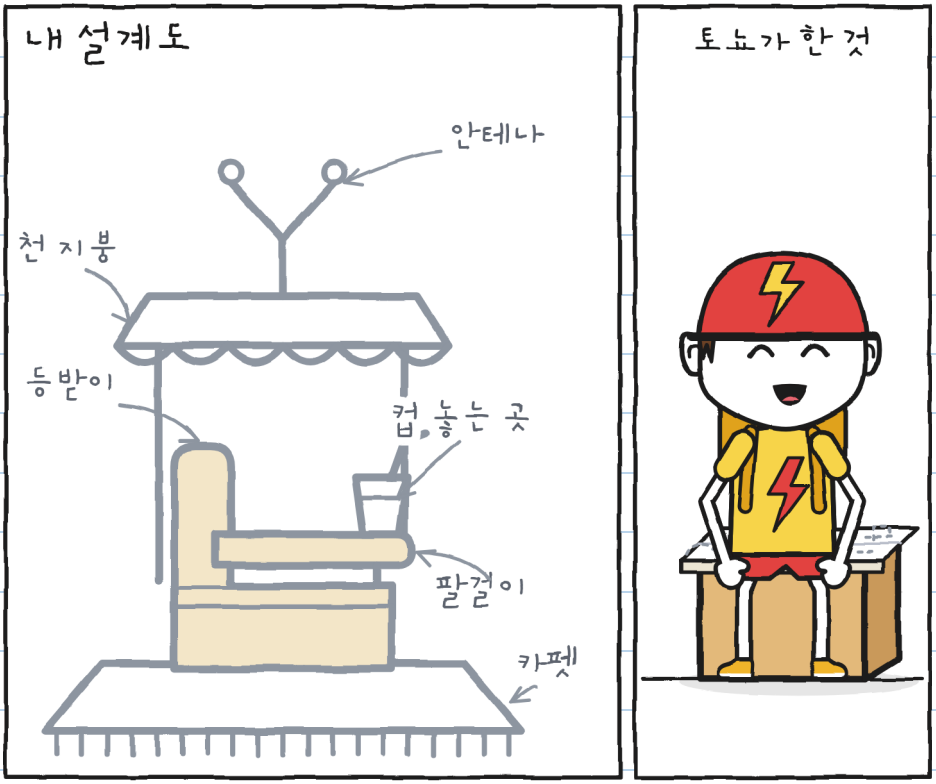
"일단은 이거면 돼요." 토쇼가 말했다.

남은 택배 17



일단은은 몇 년도 갈 수 있어. 3번 택배한테 물어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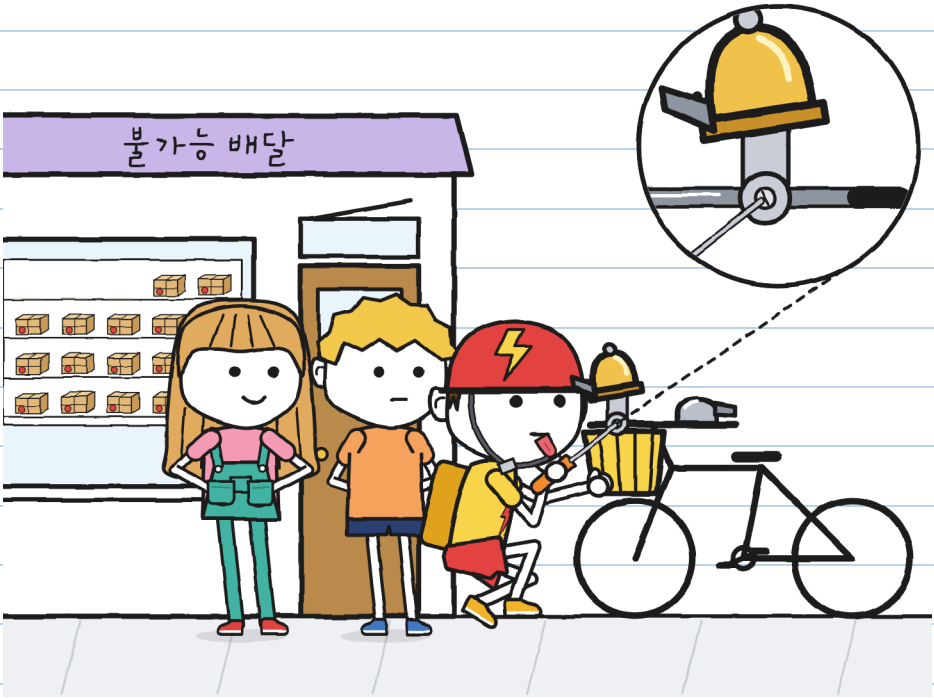
토쇼에게 의자 설계도를 보여 주었다. 일주일 내내 걸렸다.



"나 줄래?" 토쇼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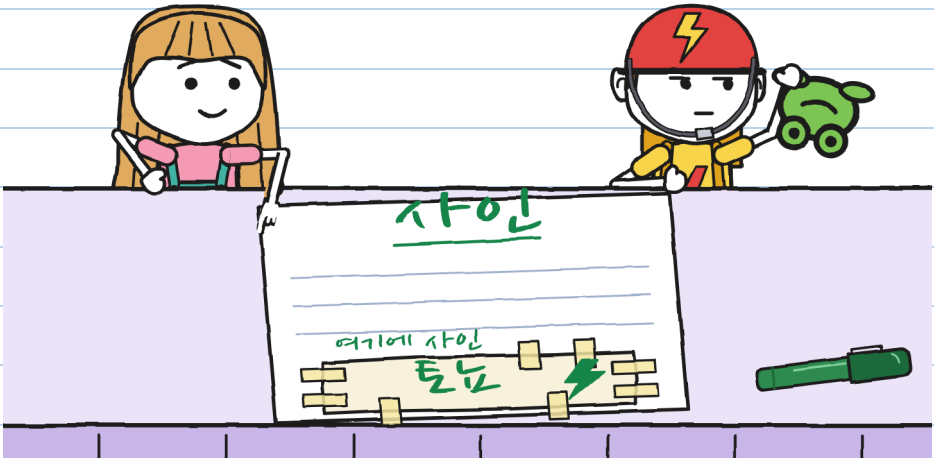
토쇼는 그림을 네 번 접었다. 상자 위에 놓고 앉았다.

밖에서 보니 종이 핸들에 비뚤게 달려 있었다.
"네가 조이는 동안 내가 잡아 줄게." 내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어."
정말 혼자서 해냈다. 나는 그 나사만 쳐다보았다. 백
바퀴는 돌아가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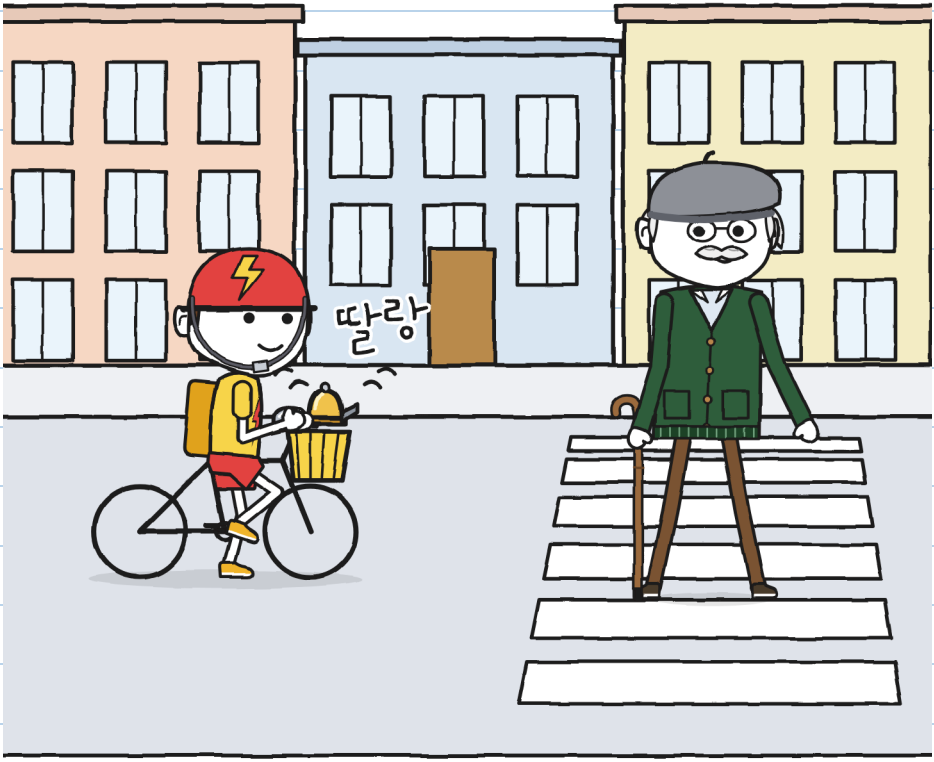
훌리타가 사인 종이를 꺼냈다. 작은 창은 종이 조각과 테이프를 잔뜩 붙여 막혀 있었다.

"함정에 썼던 거예요." 훌리타가 마라 아줌마가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고쳤어요."
그러고는 종이를 토뇨 앞에 내밀었다.
"사인해 줄래? 진짜로. 밑에 아무것도 없어."
토뇨는 종이 밑을 들여다보았다. 계산대 밑도 들여다보았다. 개구리를 뒤집어 보았다.
"좋아."



받을 만해. —J.

한낮에 토쇼는 배달을 나갔다. 베레모를 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다.
토쇼는 멈추고 기다렸다. 종을 딱 한 번 울렸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듯이.
딸랑.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인사하고 자기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내 목록의 두 번째 '우리 토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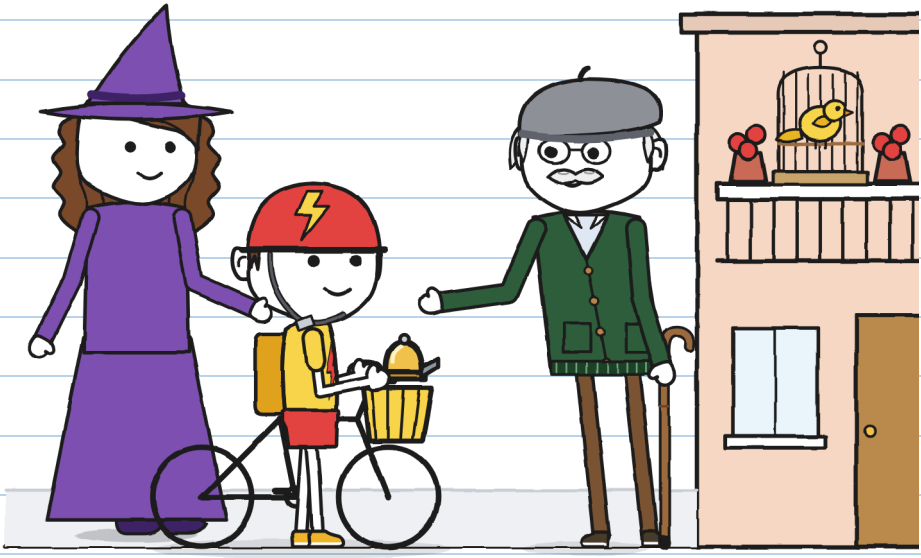
"그 종은 새것이니?" 할아버지가 우리 쪽 인도에 와서 물었다.

"오래된 거예요." 토뇨가 말했다. "제 거였어요. '우리 토뇨'라고 불리던 때 거요."

"육십 년 동안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불렀단다. 원하면 바꾸자꾸나. 너는 안토니오 할아버지, 나는 '우리 토뇨'."

토뇨는 곰곰이 생각했다.

"일단은 사양할게요."



R.의 카드를 꺼냈다. 거기에는 벌써 단서가 여섯 개 있었다. 두 개를 더 적었다. 토요가 볼펜을 달라고 해서 밑에 자기 글씨로 적었다.

R.에 대해 아는 것

?

R.

1-6 (공책 2)

7. 토요가 작은 자전거를 타던 때부터 토요를 알았다.

8. 소리가 나는 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년이 걸렸다.

남은 일: 나한테 설명해야 한다.

"고맙다고는 안 할 거야?" 홀리타가 물었다.
"고맙다는 말도 불평도. 둘 다. R.이 누군지 알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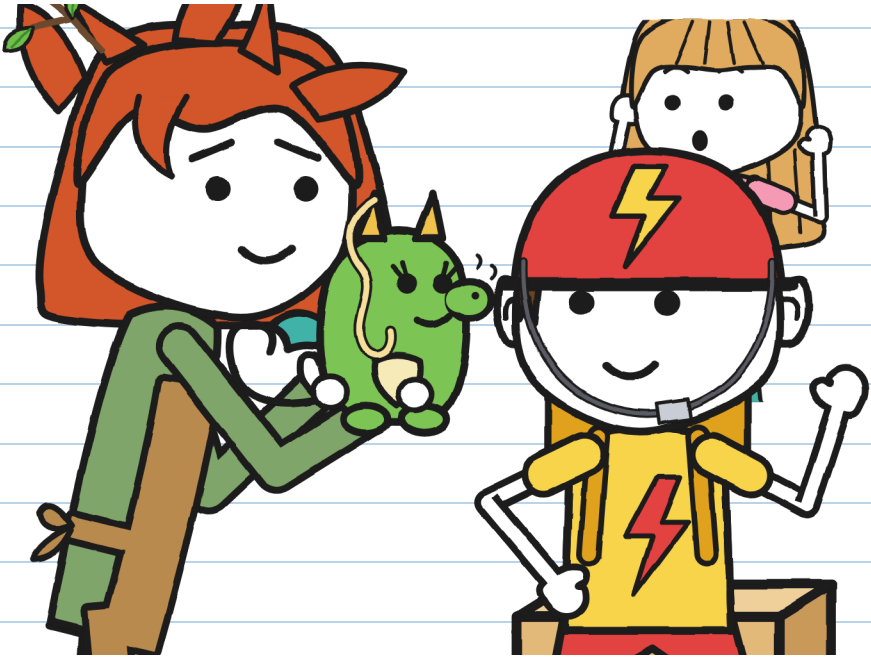
1시에 베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안고 들어왔다. 머리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꽂혀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단다. 부스러기가 이제 날아오를 줄 알아. 이제 안전하게 내려앉을 곳이 필요하단다."
베라 아줌마가 잠깐 말을 멈췄다. "어제는 내 수프를 골랐지 뭐니."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짓는 '내가 안 했어' 얼굴을 지었다.

네 얼굴이랑 똑같아. 국수 가락까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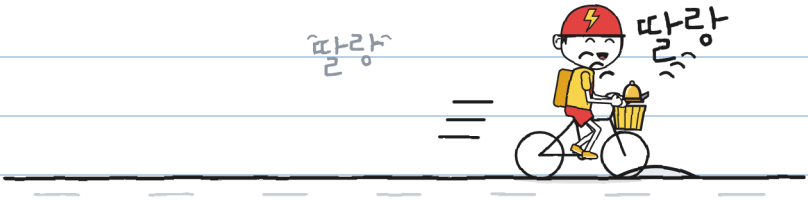
"빠른 사람이 필요하세요?" 토뇨가 상자에서 물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것도 할 줄 알아요. 이번 주부터요."



나도 기다릴 줄 알아. 이제 됐어? —J.

3번 택배 배달. 각자 걸린 시간:

	번개배송 : 10분.
	R. : 몇 년.
	토쇼 : 6일.
	귀 기울이는 휼리타 : 11분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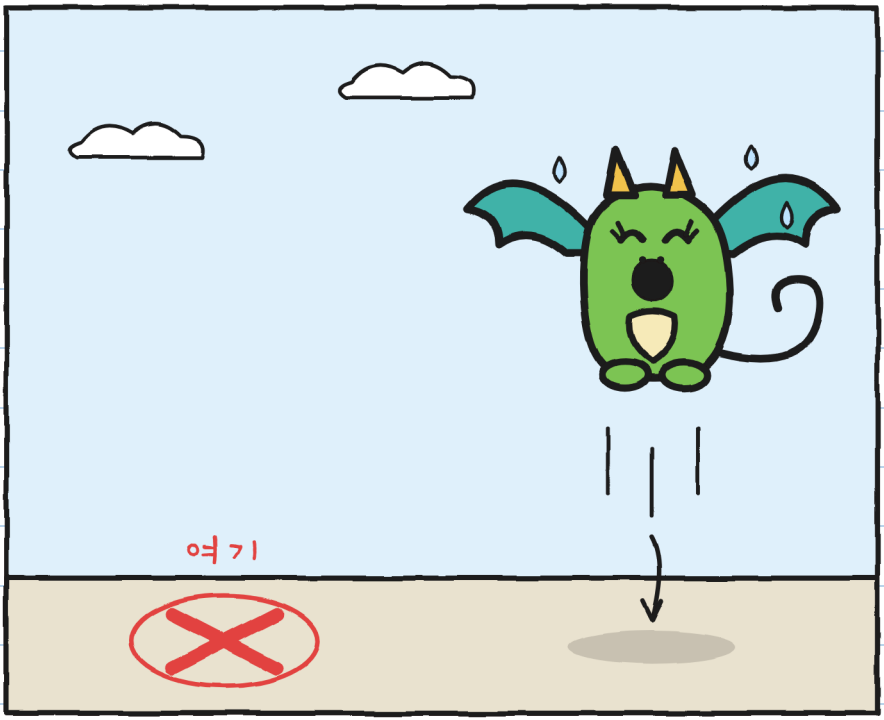


토쇼는 배달하러 나갔다. 길에서 딸랑 소리가 났다. 또 한 번.
이번에는 토쇼가 종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혼자서 딸랑거려. 노력 중이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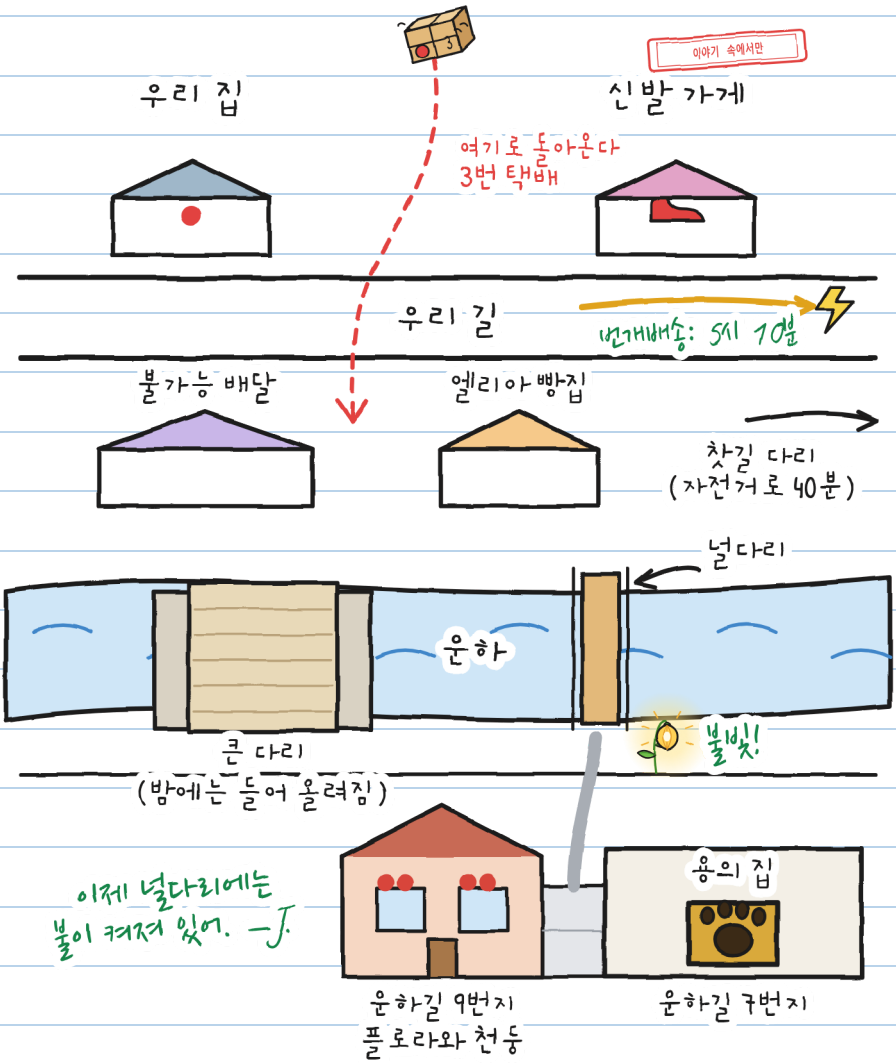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4

(곧 나옵니다)



너를 따라 하는 아기 용은 어디에 내려앉을까? —J.

우리 동네 (버전 3)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 집
신발 가게
여기로 돌아온다
3번 택배
우리 길
번개배송: 5시 10분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찾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불빛!
큰 다리
(밤에는 들어 올려짐)
이제 널다리에는
불이 켜져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너는 이름이 뭐야?

토뇨는 '우리 토뇨'라고 불렸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고른다. 너는?

이렇게 불러 주면 좋아...

이렇게 불러도 돼...

이렇게는 안 불렀으면 해...

나는 홀리타야. J.은 서명할 때만.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그리고 2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달라진다.

사이즈 XXS · PRE-A1
마라와 토뇨가 웃어. 빨간 자전거가 보여?

사이즈 XS · A1
마라 아줌마가 거의 웃었다. 토뇨도 같이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S · A2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거의 웃음이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M · B1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웃음 같았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L · B2
마라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음이었을 소리를 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건 처음 보았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같은 딸랑.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 자전거를 탈 때 해야 할 일

1. 헬멧은 언제나, 끈을 단단히 채워서. '바로 옆'에 갈 때도.
2. 남이 너를 보고 듣게 해. 등, 밝은 옷, 벨. 벨은 알리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야.
3. 두 손은 핸들에. 뭔가에 정신이 팔리면 안전한 곳에 멈춰.
4. 인도는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야. 거기서는 자전거를 손으로 끌어. 건너기 전에는 멈춰서 살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길에서는 아니야.

나가기 전에 자전거를 점검해

